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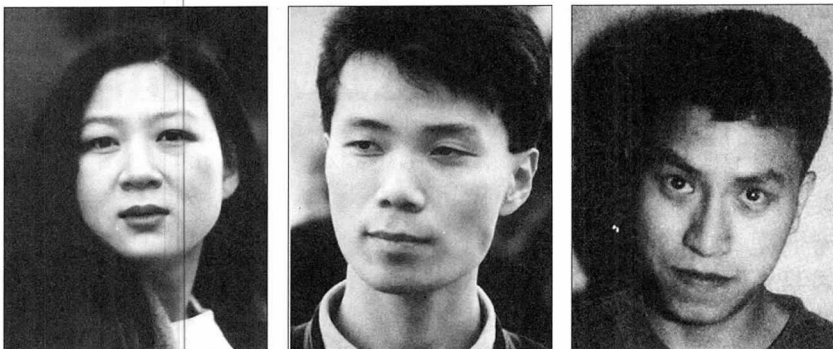
문학의 발걸음이 남긴 몇가지 논쟁

쟁점으로 읽는 '97년의 지성사

국문학

장은수

문학평론가



페미니즘 논쟁, '내면소설' 논쟁, '신세대 문학' 논쟁을 불러일으킨 주인공들. 윗줄 왼쪽부터 이문열·신경숙·윤대녕·송경아·김영하·백민석씨.

이 밤, 나는 지난 일년 동안 유리같이 미끄러운 길을 걸어왔던 문학의 걸음걸이를 생각한다. 다른 예술도 그러하겠지만 문학이란 본래 큰 강의 한가운데처럼 느리고 고요하게 움직이는 법이어서 한 해 정도의 움직임으로 그 방향을 짐작하기는 쉽지 않다. 그저 푸르고 투명한 실뿔줄들이 때때로 불거져 몸의 심층을 드러내듯 문학의 대지에 일어났던 작은 사건들을 들여다보으로써 그 심층의 윤곽선을 그려낼 수 있을 뿐. 그러나 이 또한 장님 코끼리 만지듯 쓸데없이 더듬덜 뿐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최대쟁점은 페미니즘·리얼리즘 논쟁

97년 문학계의 최대 쟁점은 이문열의 《선택》을 둘러싼 페미니즘 논쟁일 것이다. 조선조 중기에 살았던 정부인 장씨의 입을 빌려 이 시대의 빛나간 페미니즘을 비판하고자 했던 이문열의 《선택》을 둘러싼 논쟁은 문학의 영토를 넘어 여성계 전반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논쟁은 페미니즘에 대한 작가의 이해 부족과 일부 여성주의자들의 저열하고 천박한 과민반응으로 인해 다소 소모적인 방향으로 흐르기는 했으나 적어도 한국문학에 다음 두 가지 성과를 남긴 것으로 생각된다. 이야기와 연설이 혼합된 행장

의 양식이 처음으로 소설화되었다는 것이 그 하나이고, 이른바 전업주부가 긍정적 주체로 소설화되었다는 것이 그 둘이다.

두번째로 주목할 것은 '리얼리즘'을 둘러싼 논쟁이다. "모더니즘을 리얼리즘과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진정석의 문제제기로 출발한 이 논쟁은 김명환·윤지관 등 기존 리얼리즘 논자들의 격렬한 반박을 불러일으켰으며, 이광호·황종연 등의 근대성 논의와 맞물려 확대일로에 있다. 백낙청의 <지구시대의 민족문학>에서 파산의 징후를 뚜렷하게 보여주기 시작한 지난 연대의 리얼리즘론이 푸코, 데리다, 하버마스 등의 철학적 세례를 받은 신진 이론가들의 작업을 통해 얼마만큼 이론적 유효성을 회복할 것인가는 흥미로운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세번째로는 신경숙·윤대녕 등의 소설, 즉 '내면 소설'을 둘러싼 논쟁이다. '총체성의 부정, 작은 것들에 대한 관심, 개성과 내면의 추구'는 90년대 초반 비평의 중심단어였으며, 이를 가장 명료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신경숙과 윤대녕의 작품이었다면, 이제 9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이러한 문학에 대한 부정과 비판이 시도되고 있는 것일까. 이남호의 <은어는 없다>에서 촉발된 윤대녕 소설의 신비주의에 대한 비판과 이성욱의

“ 97년 문학계 최대 쟁점은 이문열의 《선택》을 둘러싼 페미니즘 논쟁이다. 또 '리얼리즘'을 둘러싼 격렬한 논의 역시 주목할 만하다. 또한 '내면소설'이나 '신세대문학'에 대한 문단의 팽팽한 입장 차이도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다. ”

<내면, 타자의 복원과 타자의 배제>에서 촉발된 신경숙 소설의 독백적 폐쇄성에 대한 비판은 자칫 90년대 소설의 한 축에 대한 전면적 부정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을 이슬 이슬하게 비켜가면서 점차 심화되고 있다.

네번째로는 송경아·김영하·백민석·김연경 등 이른바 신(新)신세대 문학에 대한 비평가들의 뚜렷한 입장 차이를 들 수 있다. 김화영·이남호·권성우·방민호 등은 이들의 문학이 기본기가 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판자본의 상업화 전략에 의해 부각된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필자를 포함해 황병하·김동식 등은 이들이 현실의 '반영(재현, 표현)'이라는 기존의 미학과는 다른, 미학적 사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필자는 일찍이 이들의 문학을 "자연/인공의 이항 대립에 근거한 지난 연대의 신화에 대항하는 문화적, 기계적 상상력의 증가, 가족 중심의 수직적 인간관계의 해체와 개인 중심의 수평적 인간관계에 대한 탐구, 우연성 내지는 카오스적 세계인식" 등으로 정리한 바 있지만, 이러한 특성을 지닌 이들의 문학이 미래의 한국문학을 위한 모퉁이들이 되기 위해서는 좀더 치열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다섯번째로 '죽비소리'를 둘러싼 논쟁이다. 김화영·이남호 등 익명을 이용한 공동서평의 형식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이는 '죽비소리'가 벌이고 있는 가치없는 비판의 내용에 대한 논쟁이라기보다는 그러한 비판 형식이 과연 비판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으로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의외로 중요한데, '누가 죽비를 들 수 있는가'라는 비평

가의 위치에 대한 문제, '익명이 더 비판적일 수 있는가'라는 비판의 본질에 대한 문제 등이 잠복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쟁은 한층 심화되어 90년대 후반 비평의 자리를 확인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세대문학 둘러싼 비평가들의 입장 차이

여섯번째로 '탈민족문학'을 둘러싼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때 민족문학이란 80년대에 활발히 논의된 민족문학(민중문학)을 포함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개념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의 국가에 하나의 문학'이라는 개별문학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90년대에 들어 한국문학이 '한국문학들'로 급격히 분열되면서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자의식은 희미해지고 '문학'에 대한 자의식이 늘어나고 있다. 배수아가 자기 어머니를 '그 여자'라고 지칭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이를 잘 보여준다. '탈민족문학론'에는 핏줄조차 객관화하지 않으면 시대의 진실에 이를 수 없는 세대의 분투가 담겨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작가 김소진의 요절을 두고 방민호가 '90년대 문학의 종언'을 선언해버린 사연을 살펴보자. 90년대 문학을 '상업주의'에 휩쓸려 아무 소득 없이 보낸 것으로 판단한 그는 "지난 봄 김소진이 세상을 떠날 때 어쩌면 문학상의 90년대는 종언을 고하기에 이르렀는지도 모른다"고 단정해버린다. 사전 속에만 살아 있는 진짜 현실과 육체가 타락한 세상 속에서 비틀거리고 있는 가짜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다가 그만 죽어버린 한 젊은 작가의 소설을 두고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것인지는 앞으로 좀더 따져볼 만한 과제이다.

혹 눈이 내리는지 문득 내다본 창밖이 희뜩희뜩하다. 반가운 마음에 창문을 여니, 어느새 비는 그치고 달빛이 물기에 반사되어 번득이고 있을 뿐. 실망을 금할 수 없어도 자리에 앉는데, 스승의 말씀 한 자락이 떠올랐다. "물음은 있으되 답이 없는 자리, 그것을 원점이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군. 이 긴 밤을 빌려 고작 나는 90년 문학계가 쏟아낸 원점 몇을 확인했을 뿐이었던가. 아, 밤은 길고 새벽은 아직 많이 남았다. ❖